

-을/를 겸하여

~을/를 겸하여 — 겸함, 아울러

하나의 자리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. 다음의 격식체 짝으로, -(으)ㄹ 겸 초대장이나 공지에 쓰는 형태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받침으로 끝남	을 겸하여	휴식을 겸하여
모음으로 끝남	를 겸하여	인사를 겸하여
명사 앞	-을/를 겸한	인사를 겸한 만찬
가벼운 변형	-을/를 겸해서	휴식을 겸해서
명사만	동사 절은 -(으)ㄹ 겸	실 겸 운동할 겸
명사 사이	명사 겸 명사	대표 겸 감독

■ 언제 쓰나요

조사는 일반 규칙을 따릅니다. 받침으로 끝나는 명사는 을,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는 를을 씁니다. 관형형은 -을/를 겸한이며, 겸해서는 더 가벼운 변형입니다.

이 표현은 명사에만 붙습니다. 보통 활동이나 역할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: 휴식, 축하, 회의, 시찰, 인사. 동사 절에는 대신 -(으)ㄹ 겸을 씁니다.

두 목적은 모두 다음에 속합니다: 하나의 자리: 휴식을 겸하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.

문체는 격식 있고 공식적입니다. 초대장에서 늘 씁니다: 신년 인사를 겸한 만찬, 창립 기념을 겸하여.

■ 예문

- 1 휴식을 겸하여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
- 2 신년 인사를 겸한 만찬에 초대합니다.
- 3 시찰을 겸해서 현지 사무소를 방문했다.
- 4 창립 기념을 겸하여 특별 전시를 엽니다.
- 5 시연을 겸한 자리에서 직접 만드는 과정을 보여 드렸다.
- 6 그는 대표 겸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.

■ 비교

-(으)ㄹ 겸
개념은 같고 결합이 다릅니다. -(으)ㄹ 겸은 동사에 붙고 대화체이며, -을/를 겸하여는 명사에 붙고 격식 있는 행사를 나타냅니다.
실 겸 나갔어요. (구어) / 휴식을 겸하여 진행합니다. (공지)

-을/를 위시하여
모양은 비슷하지만 역할이 다릅니다. 위시하여는 목록의 맨 앞에 한 사람을 내세우고, 겸하여는 한 행사에 두 목적을 합칩니다.
회장을 위시하여 (회장을 비롯하여) / 휴식을 겸하여 (휴식도 겸해서)

명사 겸 명사
두 명사 사이에서는 한 사물이나 사람에게 두 역할을 합칩니다: 대표 겸 감독, 아침 겸 점심, 서재 겸 침실.
대표 겸 감독 / 아침 겸 점심

■ 주의

- ✗ 쉬는 것을 겸하여 나갔어요.
○ 실 겸 나갔어요.
겸하여는 명사에 붙습니다. 동사에는 -(으)ㄹ 겸을 씁니다.
- ✗ 신년 인사를 겸하여 만찬에 초대합니다. — 명사 앞에서
○ 신년 인사를 겸한 만찬에 초대합니다.
뒤의 명사를 꾸밀 때는 겸하여가 아니라 겸한을 써야 합니다.
- ✗ 야, 밥 먹는 것 겸해서 얘기하자.
○ 야, 밥도 먹을 겸 얘기하자.
겸하여는 공지에 쓰는 말입니다. 대화에서는 -(으)ㄹ 겸이 자연스럽습니다.